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 및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감성지능과의 관계

Child's Emotional Intelligence : Relationship with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Child Rearing Stress

이승은(Seung Eun Lee)¹⁾

서 현(Hyun Seo)²⁾

ABSTRACT

Mothers of 101 5- to 6-year-old children were administered the Parenting Efficacy Test (Shin & Jung, 1998; Ann & Park 2002) and the Parenting Stress Index (Lee, Yeom, & Shin, 2000).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EI) was measured by the Emotional Intelligence Test for Children (Lee & Lee, 2004b). Data were analyzed by correlation and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 Correlation analysis demonstrated a relationship of parenting efficacy and stress with child's EI. MANOVA revealed that children, whose maternal parenting efficacy was in the upper thirty percent, showed higher EI than parenting efficacy in the lower thirty percent : children whose maternal parenting stress was in the upper thirty percent, showed lower EI than those with stress in the lower thirty percent.

Key Words :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 부모 효능감(parenting efficacy), 양육 스트레스(parenting stress).

I. 서론

1 이모씨는 결혼 전 방문학습 교사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생후 10달부터 학습시간표를 짜 음악, 미술, 한글, 영어 교육을 시작했다. 집에서는 항상 동화 CD나 영어 노래를 틀어둔다. 틈만 나면 동

화구연을 해주고 책을 읽어준다. 근처 대형마트의 문화센터에서 개설한 유아 신체 발달을 돕는 강좌에도 등록해 다니고 있다. 이씨는 “체계적으로 교육을 한 덕분인지 25개월 된 아들이 또래에 비해 말도 빠르고 표현력도 풍부해 주위의 부러움을 산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능력만 되면 영유치원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¹⁾ 동신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조교수

²⁾ 동신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전임강사

Corresponding Author : Seung Eun Le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Dong Shin University, Naju, Jeonnam 530-714, Korea
E-mail : hipster104@dsu.ac.kr

2 맛벌이를 하는 민모씨는 4살짜리 딸을 영어 학원 주말반에 등록시켰다. 민씨는 “어린이집에서 배운 영어를 정확한 발음으로 되풀이하는 것을 보고 영어를 가르치면 잘 받아들일 것 같아서 시작했다”며 “맛벌이를 하다보니 집에서 충분히 교육에 신경을 쓰지 못해서 아이가 자라면서 조기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에 비해 뒤처지지 않을까 불안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겨레, 2007년 4월 6일자)

최근 우리 사회의 유아들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부모의 지원과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위의 예처럼 늦어도 4살에는 한글, 5살에는 영어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 요즘 학부모들 사이에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처럼 영·유아기부터 끊임없이 제공되는 교육의 경험 때문인지 Flynn(1997, 강문희·정옥환·김승경, 2007에서 재인용)의 연구에 따르면 유아의 지능지수는 20세기 초에 비해 20점 이상 향상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과거에 비해 요즘 아이들이 더 영리하고 똑똑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감성적, 사회적 기술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강문희 외, 2007). 따라서 지적인 기능만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knowledgeable),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고(responsible), 타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감정이입할 수 있게(caring)하는 것이 교육의 진정한 목적임을 강조하는 견해가 대두되었다(Elias, Hunter, & Kress, 2001; Elias, Zins, Weissberg, Frey, Greenberg, Haynes, Kessler, Schewab-Stone, & Shriver, 1997). 즉, 감성지능의 증진을 통해 인지 지능 및 교과학습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관점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대중적 관심을 받기 이전인 1990년부터 감성지능은 학술적으로 정의되고 연구되기 시작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감성지능의 정의는 다음처럼 연구의

흐름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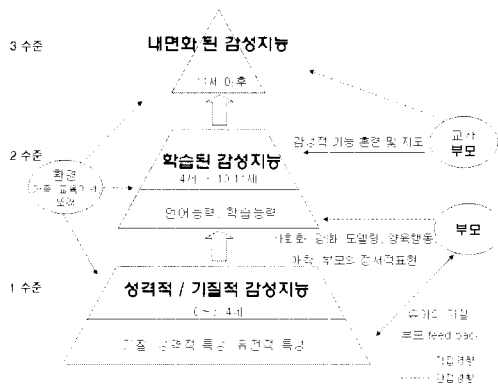
그 하나는 감성지능을 인지적 능력으로서 정의하는 것으로 ‘지능으로서의 감성지능(ability EI)’이다(이승은·이영석, 2004a; Mayer, Caruso, & Salovey, 2000b). 이는 감성지능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Mayer & Salovey로 대표되는 관점으로 감성지능을 정서 정보의 보편적 처리과정이며, 정서를 포함하는 지능으로서 정서와 관련된 추론을 수행하는 능력이며, 정서의 사고 촉진 부분을 포함한다고 정의한다(Mayer, 2001; Mayer & Salovey, 1997; Mayer, Salovey, & Caruso, 2002).

또 다른 하나는 감성지능을 성격과 관련된 속성이나 능력으로서 정의하는 방법으로 ‘성향으로서의 감성지능(trait EI)’이다(이승은·이영석, 2004a; Mayer et al., 2000b). 감성지능이라는 용어를 대중화 시킨 Bar-On(2000), Goleman(1995) 등의 입장으로 낙관성, 대인관계 등 전형적으로 성격이 좋은 사람의 특성으로 더 잘 설명될 수 있는 요인들이 감성지능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다(Mayer, 2001; Mayer, Salovey, & Caruso, 2000a; Woitaszewski, 2000). 성향으로서의 감성지능 정의가 대중적으로 더 매력적이고 흥미가 있어, 이에 의해 감성지능이 대중적 관심을 얻게 된 것이 사실(Woitaszewski, 2000)이지만, 이는 단순히 성격적 요소들이 감성지능의 요소인 것처럼 설명하여 오히려 감성지능 개념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Mayer, 2001).

요약하면, 전자는 정서를 포함한 지능으로서 감성지능을 정의하는 독창적인 접근 방법인 반면 후자는 심리적 안녕이나 대인 관계 등에 관련되는 능력과 성격적 특성과 혼합되어 감성지능이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 오히려 성격의 다른 이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이승은, 2006), 감성지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척도 개발 연구 등의 학문적 측면에서는 지능으로서

의 감성지능(ability EI) 정의를 택한 연구들이 대다수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감성지능이 정신적인 능력이라는 정의를 기초로 정서와 인지의 상호작용, 정서추론, 정서의 사고촉진 부분에 초점을 맞춘 Mayer & Salovey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였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Mayer 등(2002)은 감성지능의 Four Branch Model을 제시하고 감성지능의 하위영역을 중요성과 복잡성에 따른 수준으로 배열하였다. 즉 감성지능은 정서의 지각·평가·표현→정서의 사고촉진→정서이해→정서조절의 순으로 논리적 연속성을 가지고 발달한다는 것이다. 즉, 감성지능은 단일한 능력이 아니라 얼굴표정에 나타난 정서를 구분하고, 자신의 정서를 올바르게 표현하는 정서의 지각·평가·표현에서부터 발달이 시작되고 이를 기초로 정서의 사고촉진, 정서이해 영역의 발달이 이루어지며, 하위 세 영역의 발달이 모두 충실하게 이루어진 후에 나타나는 통합된 능력이 정서조절 영역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감성지능은 정서의 인식에서부터 시작되어 정서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고, 사고에 정서 정보를 활용하고, 타인 및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여 문제 해결을 하는 복잡하고 통합적인 능력들의 집합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요인들이 유아의 감성지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이승은(2003; 2005)이 제시한 감성지능 발달 모델에 따르면,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기 및 아동기에 해당하는 감성지능 발달의 1, 2수준은 주로 부모의 정서적 표현, 부모와의 애착, 양육행동 등의 요소와 유아 개인의 기질, 성격적 유전적 특성의 상호작용을 통해 '감성지능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이다. 즉, 부모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 영향으로 유아의 감성지능이 발달되는 시기라고 가정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도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먼저 이승은·이영석(2004a)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유아를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표현이나 생각을 인정해주고, 자녀에게 정서적, 애정적 표현을 많이 하고,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다양하게 할수록, 유아의 감성지능이 높았다. 반면 부모가 애정표현을 거의 하지 않고, 방임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경우, 유아의 감성지능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Denham(1998)의 연구에서도 부모가 유아의 정서적 표현을 지지하거나 정서상태에 관심을 갖고, 격려하면 유아가 자신의 기분이나 정서뿐 아니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사회적 유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isenberg, Fabes, Shepard, Guthrie, Mazsk, Pulin, & Johns(1999)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정서적 표현이나 반응을 무시하고,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경우, 유아의 부적 정서의 빈도가 많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유아들은 가정에서 특히 어머니와 상호작용을 많이 하므로 애착유형, 양육태도, 성격유형 등 어머니 관련 변인이 유아의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선행연구들도 다양하다. 먼저 애착유형과 감성지능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승은(2006)의 연구에서 모-자 애착 유형과 감성지능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아가 제 1양육자와의 초기 경험에서 신뢰로운 관계를 맺고, 충분한 보호와 사랑을 받아 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된 유아들은 감성지능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불안정 애착 유아들은 감성지능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주리(2005)의 연구에서도 모-자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유아의 감성지능이 높았으며, 이진화(1999), 유평수·김민수(2003)의 연구에서도 안정애착 일수록 감성지능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특히 자신 및 타인의 정서를 정확하게 지각하고 사고하는데 정서정보를 잘 활용하며 정서의 조절과 관련된 감성지능 하위영역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림 1〉 유아의 감성지능 발달모형(이승은, 2003; 2005)

한편,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감성지능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감성지능 하위영역이 유의미한 상관이 있을 뿐 아니라(강희진, 2004; 김순혜, 2003; 양예경, 2003; 유희정, 2003, 최은지; 2003),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감성지능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Camas, Ribardy, Hill, Martino, Sachs, Spaccareli, & Stefani, 1990). 반면, 어머니의 온정과 수용적 태도가 유아의 감성지능과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다(김순옥, 2002; 박영애 · 최은경, 2001).

어머니의 성격요인과 유아의 감성지능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완벽주의적 성향은 유아의 감성지능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었으며(이병래, 2005), 어머니가 유아에게 공감 및 감정이입을 많이 할수록 유아의 감성지능 하위영역 점수가 높았다(김은자 · 유미숙, 2004). 그리고 어머니의 자아의식과 유아의 감성지능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긍정적 자아의식 패턴을 가진 경우, 감성지능 총점 및 하위영역의 타인정서 인식 및 배려와 정적 상관이 있었다(안수영, 2005). 또한 어머니의 자아분화 수준과 유아의 감성지능의 상관을 알아본 윤

희진 · 민혜영(2006)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감성지능 하위영역의 타인인식 능력이 높았다. 선행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사고와 정서를 분리시키는 내적 자아분화 수준이 높고, 긍정적인 어머니일수록 자녀들이 타인의 정서를 공감하고 인식하여, 대인관계를 잘 맺으며 타인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처럼 유아의 감성지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특히 어머니 관련 변인들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유아들은 주로 어머니와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하고 이해받기도 하고,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조절하며 공감하는 기회를 가지므로(박아청, 1998), 부모 역할을 수행할 때 나타나는 다양한 어머니의 특성이 유아의 감성지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모의 성격, 정서적 반응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부모의 역할수행과 유아의 감성지능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 부모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변의 사회 · 문화적 배경 및 사건을 해석하고, 그에 따라 정서와 행동을 조직하고, 결정하는 인지적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문혁준, 1999; 안지영, 2000; Miller, 1988; Segal, 1985). 그 중에서 양육 신념, 부모 효능감, 양육 스트레스 등을 부모가 실제 자녀를 양육하며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인 요소들로 요약할 수 있다(박응임, 1995; Abidin, 1990; 1992; Mondell & Tyler, 1981). 특히 부모 효능감은 부모 자신이 자녀를 잘 양육하며, 자녀 양육과 관련된 어려움이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 즉, 부모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Johnston & Mash, 1989). 따라서 자녀의 발달적 결과에 대해 부모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로 요약할 수 있다(Luster & Kain, 1987). 부모 효능감은 Bandura의 '자기 효능감' 이론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Bandura에 의하면 자기 효능감은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서 목표달성을 위한 과제 수행에 필요한 동기 및 인지적 원천이며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김언아, 2001에서 재인용)이다. 이를 부모-자녀 관계 속에서 연관시켜 보면,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들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내린 결정이 과연 옳은지, 자녀에게 도움이 될지 등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 때 효능감이 높은 부모들은 어렵고 복잡한 양육 문제에 관련된 상황 속에서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고, 효능감이 낮은 부모들은 문제 상황을 회피해 버리거나 포기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부모 효능감을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부모-자녀의 문제에 대처해야 할 때 이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한 어머니의 자기 평가(안지영, 2000)로 정의하였다. 부모 효능감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따뜻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자녀의 능력을 인정하여 문제 해결 상황에서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Mondell & Tyler, 1981). 또한 부모 효능감이 높을수록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양육행동을 보였다(문혁준, 1999; 박현숙, 2003; 우희정, 1993).

양육 스트레스 역시 부모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특성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즉, 스트레스는 개인의 내·외적 요구가 이를 다룰

수 있는 자신의 능력보다 지나치게 높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 경험하는 것이다(김윤정, 1996). Abidin(1992)은 양육 스트레스를 부모 역할을 수행할 때, 부모가 일상적으로 지각하는 생활사건 속에서 겪는 스트레스로서 자녀의 행동 특성에 대한 부모의 지각, 부모로서 자신에 대해 스스로 느끼는 지각, 그리고 가족원의 사망이나 이혼과 같은 생활사건에서 오는 스트레스의 3영역으로 양육 스트레스를 구분하였다. 안지영(2001)은 자녀와의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어려움이 반복되어 어머니에게 성가심이나 짜증,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지각하는 정서로 양육 스트레스를 정의하고, 부모 자신 뿐 아니라 자녀의 적응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하였다. Crnic & Acevedo(1995)는 부모가 사소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자녀에게 짜증을 많이 내고, 이러한 부모의 행동이 유아의 공격적 반응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즉 부모가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들은 역기능적이고 부당한 양육행동을 보이고(박응임, 1995), 거부·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낸다(박성연·전춘애·한세영, 1996).

이러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애착, 정서표현, 성격특성과 같은 변인 이외에도 부모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인지적으로 지각하는 부모 효능감과 스스로의 인지적 평가에 의해 그 수준이 달라지는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감성지능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부모 변인이 유아의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이나 상관을 알아본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유아의 감성지능 측정방법은 주로 제 3자인 교사에 의한 평정법이나 자기 보고법이었다(이승은, 2006). 그러나 자기 보고법은 언어이해나 표현에 있어 제한된 능력을 가진 유아에게 적절한

<표 1> 연구대상 유아의 성별, 연령별 분포와 평균(M), 표준편차(SD) 및 대상 수(N)

성별 \ 만 연령	5세			6세			계		
	M	SD	N	M	SD	N	M	SD	N
남	66.23	3.45	22	77.47	2.55	19	71.44	6.43	41
여	66.16	3.83	38	77.31	3.40	22	70.25	6.54	60
계	66.18	3.67	60	77.39	2.99	41	70.73	6.48	101

방법이 아니며, 제 3자인 부모나 교사가 유아의 감성지능을 평정하는 방법은 공정성이나 관찰 능력 등의 오염변인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만족할 만한 감성지능 측정도구라고 하기 어렵다(이승은·이영석, 2000a; 이승은, 2006).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실제 수행을 평가하며, 유아의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사진, 그림패턴 및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되어 다른 감성지능 검사도구들과 차별성을 가진 검사도구인 유아용 감성지능 척도(Emotional Intelligence Test for Children : EITC, 이승은·이영석, 2004b)를 통해 감성지능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점이 선행연구와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과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감성지능의 각 하위영역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근거로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서와 인지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울 수 있는 기초 및 유아교육에의 시사점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를 근거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 및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감성지능은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 및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전남 및 광주광역시 유아교육기관에 재원하고 있는 만 5~6세 유아 및 그 어머니 101 쌍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 유아의 성별, 연령별(월령) 분포와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1>과 같다.

2. 검사도구

유아의 감성지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연구대상 유아들에게는 유아용 감성지능 검사를 실시하였고, 어머니들에게는 부모 효능감과 양육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였다.

1) 유아용 감성지능 검사

유아의 감성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이승은과 이영석(2004a)의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인 유아용 감성지능 척도(emotional intelligence test for children : EITC)를 사용하였다. EITC는 Mayer 등(2002)이 제시한 감성지능의 4요인 모델(four branch model)을 근거로 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성지능의 4요인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도구이다. 문항의 세부적인 구성은 <표 2>와 같다. 검사지의 한 면에는 검사문항을 인쇄하고, 다른 한 면에는 검사자가 피험자에게 줄 지시와

〈표 2〉 유아용 감성지능 척도의 하위 소척도와 문항 수

감성지능의 하위영역	소척도	문항 수	
유아용 감성지능 척도	정서지각	① 얼굴표정	4문항
		② 그림패턴 및 색	7문항
		③ 이야기	5문항
	정서의 사고촉진	④ 정서의 사고 촉진	5문항
		⑤ 정서의 감각적 표현	5문항
	정서이해	⑥ 변화하는 정서	5문항
		⑦ 혼합정서	2문항
		⑧ 감정이입	5문항
	정서조절	⑨ 정서조절	5문항
		⑩ 정서적 관계	4문항
4영역	10개 소척도	47문항	

(이승은 · 이영석, 2004a)

정답이 적혀있는 검사틀을 제작하여, 면접형식으로 검사자가 검사틀의 페이지를 유아를 향해 한 페이지씩 넘겨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검사자가 각 문항을 유아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주고, 3개 혹은 4개의 보기 중에서 하나의 정답을 유아가 직접 고르는 수행평가 방식이다. 한 유아 당 검사 소요시간은 25~30분 정도였다. 선행연구에서 EITC의 신뢰도는 반분신뢰도가 .78이었고 내적 합치도는 .83 이었다. 또한 발달적 변화, 내적합치도, 요인분석, 다른 검사와의 상관관을 통한 구성타당도검증 결과, EITC는 감성지능의 이론적인 구성개념과 특성을 잘 측정하는 타당하고 신뢰로운 도구임이 검증되었다.

2) 어머니용 검사

(1) 부모 효능감 검사

부모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신숙재 · 정문자(1998) 그리고 안지영 · 박성연(2002)이 사용한 척도를 기본으로 하여 연구대상 어머니들의 이해정도 및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연구자들이 수정 · 보완한 13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

구에서 사용한 부모 효능감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 고안된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이 검사는 부모 유능감(9문항) 및 부모 불안감(4문항)의 두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 유능감 요인은 부모로서의 문제 해결 기술과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기대를 측정하며, 부모 불안감 요인은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부모 역할에 대한 긴장과 불안을 나타낸다(신숙재, 1997; 오미연, 2005). 부모 유능감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의 예로는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 내가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 등이다. 부모 불안감 문항의 예는 ‘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다’, ‘부모로서 나는 긴장하고 있으며 불안하다.’ 등이다. 본 연구에서 부모 불안감 영역은 하위영역 점수 계산 시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합산하고 부모 효능감의 총점 계산 시에는 역코딩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역할의 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모 효능감 척도는 불안감과 유능감의 이질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구성요인별로 신뢰도(Cronbach α)를 산출하였는데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부모 유능감 요인이 .79, 부모 불안감 요인이 .45로 나타났다.

(2) 양육 스트레스 검사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를 변안한 연구들이 국내 연구에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Abidin의 척도를 기반으로 이경숙·염현경, 그리고 신윤오(2000)가 한국형으로 표준화한 48개 문항 중에서 전문가 협의를 통해 유아영역과 부모영역 각 12문항씩 총 24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유아영역은 자녀 양육 시 유아가 보이는 활동성, 감정표현, 적응, 요구성 등을 통해 어머니가 겪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며(양영주, 2005), 부모영역은 어머니가 경험하는 유능성, 억압, 배우자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겪는 스트레스를 포함한다. 양육 스트레스 척도도 5점 Likert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지각하고 있는 양육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Cronbach α)는 유아영역 .82, 부모영역 .78, 전체의 신뢰도는 .88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 감성지능 검사를 유아에게 실시한 검사자는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여 유아를 대하는 자세 및 태도와 능력을 갖춘 유아교육 전공 대학원생들이었다. 검사 실시에 앞서 연구자들은 검사자들을 대상으로 검사에 대한 교육을 하였다. 교육내용은 검사도구의 내용소개, 유아와의 라포 형성방법, 구체적인 검사실시과정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검사자가 유아의 답에 단서를 주거나 유아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검사 시 사용할 언어까지 제한하여 교육

하였다. 유아용 감성지능 검사는 검사자와 유아의 일대일 면담방식으로 실시되었고,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모 효능감 및 양육 스트레스 검사는 자기보고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자료수집은 2006년 11월 15일~12월 19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유아의 감성지능 요인과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 및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 및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유아의 감성지능 점수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어머니 부모 효능감 및 양육 스트레스 수준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유아의 감성지능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MANOVA 분석을 수행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유아 감성지능의 특성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를 제시하기 전에 먼저 <표 3>에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들의 감성지능 경향을 제시하였고, <표 4>에 그 어머니들의 부모 효능감 및 스트레스의 전반적 경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연구대상유아들의 감성지능에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의 감성지능은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감성지능의 총점 및 각 하위영역이 조합된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_{(1,99)}=4.96$ $p<.001$). 즉 유아의 연령 증가에 따라 감성지능의 하위영역들이 유의미한 차별적

〈표 3〉 연구대상 유아 감성지능의 전반적 경향

(N=101)

집단	하위영역	N	정서지각 (16점 만점) 얼굴표정/그림패턴 및 색이야기	정서의 사고촉진 (10점 만점) 사고촉진/감각적 표현	정서이해 (12점 만점) 정서변화/혼합 정서/ 감정이입	정서조절 (9점 만점) 정서조절/정서관계	감성지능 총점 (47점 만점)
			5세	남	22	11.55 (2.58)	6.32 (2.16)
	여	38	11.61 (2.65)	7.00 (2.09)	8.76 (1.82)	3.97 (2.25)	31.34 (5.53)
	전체	60	11.58 (2.59)	6.75 (2.12)	8.55 (2.11)	3.62 (2.00)	30.50 (6.68)
6세	남	19	11.95 (2.17)	8.00 (1.56)	9.42 (1.98)	4.79 (1.96)	34.16 (5.53)
	여	22	12.04 (2.17)	8.10 (1.34)	9.54 (1.87)	4.73 (2.18)	34.41 (5.25)
	전체	41	12.00 (2.14)	8.05 (1.43)	9.48 (1.89)	4.76 (2.05)	32.47 (5.85)
계	남	41	11.73 (2.37)	7.10 (2.07)	8.76 (2.35)	3.83 (2.15)	31.42 (7.18)
	여	60	11.77 (2.47)	7.40 (1.91)	9.05 (1.86)	4.25 (2.04)	32.47 (5.85)
	전체	101	11.75 (2.42)	7.28 (1.97)	8.93 (2.07)	4.08 (2.09)	32.04 (6.41)

변화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다변량 통계치는 각 하위영역의 조합된 평균이 유아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 모든 개별 하위 영역에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종속변인의 상대적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단변인 *F* 값을 살펴보았다. <표 5>에 의하면 감성지능 발달의 가장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영역인 정서지각 영역은 이미 발달이 이루어져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정서의 사고촉진, 정서이해, 정서조절의 3요인은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F* 값이 가장 큰 정서의 사고촉진 요인이 각 하위영역의 조

합된 평균의 차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변인이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유아의 감성지능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달하는 능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 및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감성지능 하위요인과의 관계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 및 스트레스와 유아의 감성지능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각 하위영역 간 상관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101명 유아들의 감성지능 총점

〈표 4〉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 양육 스트레스의 전반적 경향

어머니	유아	남(n=41)	여(n=60)	전체(N=101)
		M(SD)	M(SD)	M(SD)
부모 효능감	부모 유능감	29.00 (5.68)	30.30 (4.81)	29.77 (5.19)
	부모 불안감	12.00 (3.37)	11.32 (2.29)	11.59 (2.78)
	부모효능감 총점	41.44 (4.99)	42.47 (4.92)	42.05 (4.96)
양육 스트레스	자녀양육스트레스	31.17 (6.39)	29.33 (6.86)	30.08 (6.71)
	부모역할부담감	31.17 (6.18)	31.21 (6.45)	31.20 (6.31)
	양육스트레스총점	62.32(11.95)	60.55(12.70)	61.27 (12.38)

<표 5> 유아의 성별, 연령에 따른 감성지능 총점 및 하위영역의 MANOVA 분석결과

IV	DV	Wilk's Lambda	단변인 F	df
성별	정서지각	.98	.02	1
	사고촉진		1.00	1
	정서이해		.71	1
	정서조절		1.21	1
	EQ 총점		1.01	1
연령	정서지각	.83***	.70	1
	사고촉진		12.82**	1
	정서이해		5.80**	1
	정서조절		9.41**	1
	EQ 총점		10.36**	1
성별× 연령	정서지각	.96	.01	1
	사고촉진		.58	1
	정서이해		.30	1
	정서조절		1.56	1
	EQ 총점		.65	1

단변인 F 값은 $p < .01$ 이상인 경우에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함.

* $p < .05$ ** $p < .01$ *** $p < .001$

및 하위영역과 그 유아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양육 스트레스 및 부모 효능감 점수와의 상관을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에 따르면 전체 감성지능 총점과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 총점과의 상관은 $r = .52(p < .01)$, 부모 유능감 하위요

인과는 $r = .45(p < .01)$ 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반면, 부모 불안감 하위요인과는 $r = -.35(p < .01)$ 의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그리고 감성지능 총점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총점과는 $r = -.41(p < .01)$, 유아영역과는 $r = -.33(p < .01)$, 부모영역과는 $r = -.45(p < .01)$ 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3.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 및 스트레스 변인이 유아의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 및 양육 스트레스의 수준에 따라 유아의 감성지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대상 101명 유아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으로 실시한 부모 효능감 점수가 상위 30%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이 높은 집단으로, 하위 30%에 속하는 경우는 부모 효능감이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양육 스트레스의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구분하였고, 부모 효능감 및 양육 스트레스 상하 집단별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7>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부모 효능감 및 양육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집단구분을 독립변인, 각 집단별 유아들의

<표 6>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 및 스트레스 변인과 감성지능 총점 및 하위요인 간 상관 (N=101)

		유아 감성지능				
		정서지각	사고촉진	정서이해	정서조절	감성지능 총점
어머니 양육관련 변인	부모 유능감	.32**	.34**	.35**	.35**	.45**
	부모 불안감	-.23*	-.22**	-.29**	-.30**	-.35**
	총점	.30**	.42**	.45**	.40**	.52**
양육 스트레스	유아영역	-.19	-.31**	-.28**	-.23**	-.33**
	부모영역	-.32**	-.42**	-.31**	-.33**	-.45**
	총점	-.27**	-.38**	-.30**	-.29**	-.41**

** $p < .01$

〈표 7〉 부모 효능감, 양육 스트레스 상·하 집단의 평균(M) 및 표준편차(SD)

	상위 30% (n=32)	하위 30% (n=32)	전체 (N=101)
부모 효능감	46.43(2.95)	37.40(4.43)	41.92(6.19)
양육 스트레스	75.44(7.01)	47.68(5.99)	61.78(15.42)

감성지능 하위영역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MANOVA 분석을 수행하였다. 부모 효능감 및 양육 스트레스에 따른 감성지능 검사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8>과 같으며 MANOVA 분석 결과는 <표 9>과 <표 10>에 제시하였다. 종속변인이 하나 이상이며 감성지능 하위영역들이 상호상관이 있으므로 1종 오류의 증가를 막기 위해 다변량 통계치인 Wilk's Lamda 값을 F 분포 상에서 부모 효능감 및 스트레스를 독립변

인으로 하여 각각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모 효능감 및 양육 스트레스에 따라 유아의 감성지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 점수가 상위 30%에 해당하는 집단의 유아들의 감성지능 점수는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 점수가 낮은 집단의 유아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F_{(1,99)}=3.65 p<.01$), 양육 스트레스의 경우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하위 30%에 해당하는 집단 유아들의 감성지능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_{(1,99)}=3.36 p<.01$).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 및 양육 스트레스에 따라 유아의 감성지능 하위영역 즉 개별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단변인 F 검증 결과를 살펴보았다. 감성지능 하위요인들이 서로

〈표 8〉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 및 양육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유아 감성지능 검사 점수

어머니 양육관련 변인	N	감성지능	M(SD)
부모 효능감	32	정서지각	12.09 (2.17)
		사고촉진	8.16 (1.88)
		정서이해	9.78 (1.64)
		정서조절	4.84 (2.14)
		총 점	34.87 (5.49)
양육 효능감 하위 30%	32	정서지각	10.71 (2.42)
		사고촉진	6.53 (1.84)
		정서이해	8.56 (2.35)
		정서조절	3.50 (2.04)
		총 점	29.31 (6.83)
양육 스트레스 상위 30%	32	정서지각	10.84 (2.66)
		사고촉진	6.38 (2.26)
		정서이해	8.16 (2.21)
		정서조절	3.66 (2.04)
		총 점	29.03 (6.83)
양육 스트레스 하위 30%	32	정서지각	12.19 (1.99)
		사고촉진	8.00 (1.84)
		정서이해	9.65 (1.72)
		정서조절	5.00 (1.94)
		총 점	31.89 (6.80)

〈표 9〉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 수준에 따른 유아 감성지능 하위영역의 MANOVA 분석결과

IV	DV	Wilk's Lambda	단변인 F	eta ²	단계적 F	df
부모 효능감	정서지각	80**	5.70	.08	5.70*	1
	사고촉진		12.12***	.16	6.10**	1
	정서이해		5.77	.09	.50	1
	정서조절		6.58*	.10	1.78	1

단변인 F 값은 $p < .01$ 이상인 경우에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함.

* $p < .05$ ** $p < .01$ *** $p < .001$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고 2개 이상이므로 단변인 F 값의 경우, 1종 오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유의 수준을 적용하여 $p < .01$ 이상인 경우만 유의미한 것으로 평가하였다(양병화, 1998). 먼저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 수준이 상위 30%에 해당하는 집단의 유아들은 하위 30% 집단의 유아들에 비해 정서의 사고촉진 영역 및 정서조절 영역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정확하게 감성지능 하위영역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 Roy-Bargman의 단계적 F검증을 수행하고, Eta² 를 살펴본 결과, 정서의 사고촉진 하위영역이 각 하위영역의 조합된 평균의 차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변인이며,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의 영향이 가장 크게 미친 변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수준이 상위 30%에 해당하는 집단의 유아들은 하위 30% 집단의 유아들에 비해 정서의 사고촉진, 정서이해, 정서조절 영역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변인 F 검증에서는 감성지능 대부분의 하위영역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Roy-Bargman의 단계적 F 분석 결과, 정서이해 및 정서조절 영역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계적 분석에서 나중에 분석된 종속변인의 변량이 하나 이상의 공변량과 공유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단변인 F 값 및 Eta² 중심으로 종속변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양병화, 1998). 따라서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 감성지능의 정서의 사고촉진, 정서이해, 정서조절 하위영역에 비슷한 정도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I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과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감성지능의 각 하위영역

〈표 10〉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유아 감성지능 하위영역의 MANOVA 분석결과

IV	DV	Wilk's Lambda	단변인 F	eta ²	단계적 F	df
양육 스트레스	정서지각	81**	5.16	.08	5.16*	1
	사고촉진		9.70**	.14	4.80*	1
	정서이해		8.82**	.13	1.70	1
	정서조절		7.13**	.10	1.29	1

단변인 F 값은 $p < .01$ 이상인 경우에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함.

* $p < .05$ ** $p < .01$

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근거로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서와 인지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울 수 있는 기초 및 유아교육에의 시사점을 제공하려는 것이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감성지능의 발달 경향을 살펴본 결과, 성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연령이 높은 유아들이 감성지능 총점 및 정서의 사고촉진, 정서이해, 정서조절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더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유아가 성숙함에 따라 감성지능도 점진적으로 발달하고 변화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각 하위영역의 발달이 충실화 되어 간다고 밝힌 선행연구들(김경희, 1999; 이승은, 2005)과 일치한다. 또한 이승은(2005)은 유아의 감성지능 발달 경향성 연구를 통해 유아의 감성지능도 다른 발달 영역처럼 점진적이고 축적된 변화과정을 보이므로, 유아기의 초기 경험이 감성지능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유아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머니가 자녀를 잘 양육하며, 자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부모로서의 자신감인 부모 효능감(오미연, 2005)과 자녀를 양육하는데 따르는 부담감, 불편함, 긴장감을 느끼는 정도를 나타내는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감성지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첫 번째 연구문제는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 및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감성지능은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이다. 연구문제 확인을 위해 먼저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과 유

아의 감성지능 하위요인 사이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부모 효능감 하위 요인 중 부모 유능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부모 불안감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 불안감 요인 문항을 역코딩하여 부모 유능감 점수와 합한 효능감 총점과 유아 감성지능 총점은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이는 어머니가 부모로서 역할 및 양육방법에 확신을 갖고 자녀를 대할수록, 유아의 정서가 안정적으로 발달한다고 주장한 선행연구들(Luster & Kain 1987; Johnson & Mash, 1989, 신숙재, 1997; 안지영, 2000)과 맥락을 같이 하며,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보살핌의 능력이 유아의 감성지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병래, 2005)을 뒷받침 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 감성지능의 총점 및 하위요인과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어머니의 스트레스 하위영역 중 유아영역은 자녀 양육 시 유아가 보이는 활동성, 감정표현, 적응, 요구성 등으로 인해 겪는 스트레스를 의미하고, 부모영역은 억압, 배우자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겪는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뜻한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감성지능이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다는 것은 어머니가 자녀양육을 성가심이나 짜증,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지각하여(안지영, 2000), 정서적 어려움을 겪을수록 유아의 감성지능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부모가 사소한 스트레스들을 경험하고, 자녀에게 짜증을 많이 낼수록 유아의 감성지능 점수가 낮았다고 보고한 조우리(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부모의 만성적 스트레스는 부모-자녀 관계 및 유아의 발달과 부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와도(Crnic & Booth, 1991; Patterson, 1982) 맥락을 같이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두 번째 연구문제는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 및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이다. 연구문제 확인을 위해 연구대상 유아들의 어머니에게 자기보고식으로 실시한 부모 효능감 점수가 상위 30%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모 효능감이 높은 집단으로, 하위 30%에 속하는 경우는 부모 효능감이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고 다변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부모 효능감이 상위 30%에 해당하는 집단 유아들의 감성지능 하위영역 중 특히 정서의 사고촉진 및 정서조절 영역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감성지능 하위영역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감성지능 하위영역 중, 정서의 사고촉진이 부모 효능감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변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아기는 발달단계상 자아개념, 자율성 및 자조능력이 발달하여 모-자 상호작용에서 새로운 협상이 요구되는 시기(정옥분, 2002)이다. 그러므로 신생아 시기에는 부모 역할에 대한 확신이 컸던 어머니들도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자신의 역할 및 양육방식에 대한 확신이 줄고, 갈등하는 경향이 있다(Gross, Conrad, Fogg, & Worthke, 1994). 따라서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모 효능감이 높을수록 확신과 동기를 가지고 자녀와 상호작용 하며 양육의 어려움으로 인한 갈등과 혼란을 덜 느끼며, 적절하게 정서를 표현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이 유아의 정서정보를 활용하여 판단하고, 기억하고 다양한 관점을 취하고 문제해결을 촉진하는 정서의 사고촉진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따라 유아의 감성지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대상 유아 어머니들의 양육 스트레스 점수가 상위 30%에 해당하는 경우,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

스가 높은 집단으로 하위 30%에 속하는 경우, 양육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감성지능의 하위영역에 대한 다변량 분석을 수행한 결과, 양육 스트레스가 상위 30%에 해당하는 집단 유아들의 감성지능 하위영역 중 정서지각을 제외한 대부분의 하위영역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양육 스트레스를 느낄수록 자녀를 대하는 태도 및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Cmic & Acevedo, 1995)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심리적으로 건강할수록 자녀와 공감을 잘 하고,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으며(박성희, 1996), 나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원만한 가정환경 속에서 유아의 감성지능이 올바르게 발달한다는 견해의(Salovey & Sluyter, 1997) 타당성을 뒷받침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부모로서 자신의 능력을 지각하고 부모 역할 및 양육방법에 확신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는 것과 자녀와의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어려움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유아의 감성지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즉 이병래(2005)의 연구에서 가능성이 제시되었던 바와 같이 부모의 긍정적 심리적 자세가 유아의 감성지능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어머니가 자신의 역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자녀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 뒷받침 되었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본 연구를 통해 유아교육에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 연령은 만 5, 6세의 유아들이었다. 두 연령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령별 발달적 차이가 큰 유아들을 각각 연령별로

구분하여 폭넓게 탐색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부모 효능감 및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다양하게 요구되는 양육기술로 인해 변화될 수 있으므로(Gross, et al., 1994) 다양한 연령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효능감 및 스트레스를 비교하고 나아가 감성지능을 비롯한 다양한 발달적 변화를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 효능감 검사 중 부모 불안감 요인의 신뢰도(Cronbach α)가 .45로 낮게 나타났다. Cronbach α 는 검사 문항 간의 동질성의 정도를 나타내 주는 신뢰도로써 이질적 요인으로 검사가 구성되어 있으면 구성요인별로 내적합치도를 산출해야 한다(이은혜, 1995). 따라서 부모 효능감 검사도 유능감과 불안감의 상반된 두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지므로 요인별로 내적합치도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모 불안감 요인의 내적합치도가 낮게 나타난 이유는 불안감 요인의 문항(4문항)수가 적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척도 자체에 내재된 문제일 수도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가 유아교육에 미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유아기는 유아 자신의 기질, 성격 및 유전적 요인과 부모의 정서적 표현, 양육행동 등의 부모 변인과의 상호작용으로 감성지능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이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더욱 강조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유아의 기질적, 성격적 특성에 맞게 정서를 표현해주고, 유아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의 제공도 필요하지만 부모 역할을 수행하면서 갖는 신념, 즉 부모가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갖는 자신감이 자녀의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단순한 지식 및 정보의 제공 보다 부모의 자신감을 고양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아기는 발달 단계상 자아개념과 자울성이 발달하는 시기이므로 매 순간마다 부모와의 새로운 협상이 요구되므로 유아의 각 발달 시기별로 요구되는 적절한 부모의 역할의 제시 뿐만 아니라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전략이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정도가 낮을수록 유아의 감성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 어머니들이 자기 만족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경우, 유아의 감성지능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바 있다(이병래, 2005). 따라서 유아의 조화로운 발달을 위해서 어머니들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의 다각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 또한 부모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유아 교육 프로그램 정보가 넘쳐난다. 수백만원씩 하는 학습교구들이 유아를 둔 가정의 필수품이 되다시피 하여 자녀를 ‘마음껏 놀게 하겠다’는 나름의 소신과 자신감을 가진 부모들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이다.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무조건 새로운 것을 사주고, 무엇인가를 제공해주는 것보다 부모가 자신의 역할에 소신과 자신감을 갖고, 자녀와 안정적 유대를 갖는 것이 유아의 정서와 인지의 조화로운 발달에 중요한 요소임을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참 고 문 헌

- 강문희 · 정옥환 · 김승경(2007). **아동을 위한 감성지능 촉진 프로그램**. 서울 : 시그마프레스.

- 강희진(2004).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 정서지능과의 관계연구.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경희(1999). 교사용 유아 정서지능 평정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순옥(2002). 유치원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순혜(2003). 아동의 기질 및 양육태도와 정서지능과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7(4), 205-217.
- 김연아(2001). 예비 유아교사의 자아개념, 학습스타일과 자기 효능감과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윤정(1996). 양육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미술활동 중심 집단 상담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응자·유미숙(2004). 부모역할지능이 유아의 자아개념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9(2), 5-20.
- 문혁준(1999). 취업모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부모 효능감이 자녀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6), 97-107.
- 박성연·전춘애·한세영(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따른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5), 143-166.
- 박성희(1996). 공감의 구성요소와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연구. **교육학연구**, 34(5), 143-166.
- 박영애·최은경(2001). 부모의 양육행동 및 인성과 아동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221-238.
- 박응임(1995). 영아-어머니 간 애착 유형과 그 관련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아청(1998). **자기의 탐색**. 서울 : 교육과학사.
- 박현숙(2003).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놀이성과 부모 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숙재·정문자(1998).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9(1), 27-42.
- 안수영(2005). 어머니의 자아식 패턴과 유아의 감정지능과의 관계. **아동교육**, 14(2), 111-124.
- 안지영(2000).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안지영·박성연(2002).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1), 53-68.
- 양병화(1998). **다변량 자료분석의 이해와 활용**. 서울 : 학지사.
- 양애경(2003). 아동의 정서지능과 부모의 양육태도 간의 관계.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영주(2005). 장애 유아 어머니와 비장애 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부모역할 만족도 비교 연구.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미연(2005).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 양육 지식과 민감성의 비교연구 :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우희정(1993). 가정환경과 아동의 자기효능감 간의 인과모형 탐색.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유평수·김민수(2003). 유아-부모의 애착유형과 정서지능과의 관계. **인문과학연구**, 8, 113-147.
- 유희정(2003). 부모의 수용-거부적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과의 관계.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희진·민혜영(2006).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유아의 정서지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2), 277-297.
- 이경숙·엄현경·신운오(2000). 한국형 부모양육 스트레스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소아-청소년의학**, 11(1), 70-78.
- 이병래(2005). 어머니의 완벽주의 성향과 자녀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9(4), 277-294.

- 이승은·이영석(2004a). 유아용 감성지능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학연구*, 42(3), 519-551.
- 이승은·이영석(2004b). 유아용 감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아동학회지*, 25(6), 171-189.
- 이승은(2005). 유아의 감성지능 발달 경향성 연구. *아동학회지*, 26(6), 29-43.
- 이승은(2006). 유아의 애착과 감성지능의 관계. *미래 유아교육학회지*, 13(3), 209-237.
- 이은혜(1995). *아동발달의 평가와 측정*. 서울 : 교문사.
- 이진화(1999).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애착과 정서지능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주리(2005). 유아기 모-자녀 간 애착유형과 정서지능과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학회지*, 14(3), 379-386.
- 정옥분(2002).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 학지사.
- 조우리(2004). 어머니 및 유아의 스트레스 변인과 유아 감성지능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은지(2003). 양육태도, 정서지능 그리고 대인관계의 관계.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겨레(2007). *육아깁깁백서 16, 생후 10달부터 학습하자니 부담 안하자니 불안*. 4월 6일자 사회문화면.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Charlottesville, VA :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Th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1-412.
- Bar-On, R. (2000). Emotional and social intelligence : Insight from the emotional quotient inventory. In R. Bar-On & J. Parker(Eds.), *Handbook of emotional intelligence : Theory, development, assessment, and application at home school, and work place*(pp.363-388). San Francisco : Jossey-Bass.
- Camas, L. A., Ribardy, S., Hill, J., Martino, S., Sachs, V., Spaccarelli, S., & Stefani, R. (1990). Maternal facial behavior and the recognition and production of emotional expression by maltreated and normal treated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6, 304-312.
- Crnic, K. A., & Acevedo, M. (1995). Everyday stresses and parenting. In M.H.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 Vol. 4*(pp.277-297).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rnic, K. A., & Booth, C. L. (1991).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 of daily hassles of parenting across early child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1042-1050.
- Denham, S. A. (1998). *Emotional development in young children*. NY : Guilford.
- Elias, M. J., Hunter, L., & Kress, J. (2001). Emotional intelligence and education. In J. Ciarrochi, J. Forgas, & J. Mayer(Eds.), *Emotional intelligence in everyday life : A scientific inquiry*(pp.133-149). PA : Psychology Press.
- Elias, M. J., Zins, J. E., Weissberg, R. P., Frey, K. S., Greenberg, M. T., Haynes, N. M., Kessler, R., Schewab-Stone, M. E., & Shriver, T. P. (1997). *Promoting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 Guideline for educator*. Virginia :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 Eisenberg, N., Fabes, R. A., Murohy, B. C., Shepard, S., Guthrie, J. K., Mazsk, P., Pulin, R., & Johns, S. (1999). Prediction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s socially appropriate and problem behavior from anger reaction at age 4-6 year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0, 119-142.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Y : Bentam.
- Gross, D., Conrad, B., Fogg, L., & Wohke, W. (1994). A longitudinal model of maternal self-efficacy, depression, and difficult temperament during toddler-hood.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7, 207-215.
- Johnson, C., & Mash, E. J. (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18, 167-175.

- Luster, T., & Kain, E. L. (1987). The relation between family context and perceptions of parental efficacy.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29, 301-311.
- Mayer, J. D. (2001). A field guide to emotional intelligence. In J. Ciarrochi, J. D. Mayer(Eds), *Emotional intelligence in everyday life : A scientific inquiry* (pp.3-24). PA : Psychology Press.
- Mayer, J. D., & Salovey, P. (1997).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J.D. Mayer & P. Salovey(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pp.3-31). N.Y. : Basic Books.
- Mayer, J. D., Salovey, P., & Caruso, D. (2000a). Emotional intelligence as zeitgeist, as personality and as a mental ability. In R. Bar-On & J. Parker (Eds), *Handbook of emotional intelligence : Theory, development, assessment, and application at home school, and work place*(pp.92-117). San Francisco : Jossey-Bass.
- Mayer, J. D., Caruso, D., & Salovey, P. (2000b). Selecting a measure of emotional intelligence : The case for ability scale. In R. Bar-On & J. Parker(Eds), *Handbook of emotional intelligence : Theory, development, assessment, and application at home school, and work place*(pp.320-342). San Francisco : Jossey-Bass.
- Mayer, J. D., Salovey, P., & Caruso, D. (2002). *MSCEIT : User's manual*. Toronto, Canada : Multi-health System.
- Miller, S. A. (1988).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9, 259-285.
- Mondell, S., & Tyler, F. B. (1981). Parental competence and styles of problem solving/ play behavior with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7, 73-78.
- Patterson, G. R. (1982). *Coercive family process*. OR : Costalia.
- Salovey, P., & Sluyter, D. J. (1997).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 Educational implication*. NY : Basic Books.
- Segal, M. (1985). A study of maternal beliefs and values within the context of an intervention program. In I. E. Sigel(Ed.), *Parental belief systems :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pp.271-286).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Woitaszewski, S. (2000). *The contribution intelligence to the social and academic success of gifted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all State University.
- Zeidner, M., Matthews, G., Roberts, R. D., & MacCann, C. (2003). Development of emotional intelligence : Towards a multi-level invest model. *Human Development*, 46, 69-96.

2007년 4월 30일 투고 : 2007년 7월 2일 채택